

# 한중 현대여성서사에서 나타나는 ‘광기’

– 백신애의 「광인수기」와 메이냥의 「수술하기 전」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

최 은 정  
(계명대학교)

## 1. 들어가면서

한국과 중국의 현대여성소설<sup>1)</sup>은 그 탄생과 발전과정에서 많은 유사점을 지닌다. 오랜 세월 한국과 중국을 사상적으로 지배해온 봉건적 윤리 관념의 그늘 아래에서 양국 여성들은 윤리적 도덕적인 책임과 함께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다. 게다가 일본을 비롯한 서구 열강의 침입으로 인한 국가적 민족적 재난은 여성들이 져야 할 짐을 한층 더 배가시켰다. 20세기 초부터 자아해방과 개인해방의 물결 속에서 문단에 진출한 양국의 여성 작가들은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 배태되고, 점차 확산 발전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글쓰기는 자국의 사회역사적 특징에 따른 특수성 외에, 여성이기에 공유하는 보편성이 함께 녹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들의 글쓰기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여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문제점을 찾고 이에

---

1) 중국과 한국은 문학사에 대한 시기구분에 차이가 있다. 중국의 경우 1917년부터 1949년까지를 현대문학으로 지칭하는 반면, 한국은 이 시기에 이루어진 문학을 근대문학이라 칭한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현대와 한국의 근대를 통칭하여 현대여성소설로 통칭한다.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이 된다.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양국문학의 비교 연구에 있어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검토하는 것이 양국 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찾아볼 수 있는 한 방편임을 감안할 때<sup>2)</sup>, 양국현대여성소설의 비교 연구는 양국 현대 여성서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짚어내는 하나의 창이 된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의 여성작가 작품에 대한 비교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sup>3)</sup> 최근 한중현대문학에 대한 비교 연구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일정 정도에 오른 현실을 감안<sup>4)</sup>하면, 이는 다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고는 ‘광기’의 각도에서 양국 현대여성서사에 나타나는 여성됨의 문제에 대해 사유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왜 광기인가. 여성서사와 광기의 내적인 연관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광기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기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이성중심의 역사에서 광기는 이성 또는 이성적 권력의 ‘타자’로 규정되어진다. 광기의 역사적 인식을 추적해보면, 중세 시대 광기는 신앙에 바탕을 둔 신비함의 특징을 지녔다. 인간의 의식으로 파악되는 이성의 영역으로는 판단하거나 규정할 수 없는 모호한 것이었기에 이를 종교의 언어로 풀고자 했던 것이다. 때문에 광

2) 송현호, 「한중현대소설의 유사성과 변별성에 대한 연구」, 『비교문학』25집, 128쪽, 2000.

3) 한국학술정보원의 연구 검색 결과를 보면, 양국 현대문학에서 여성들의 삶을 비교, 조명한 연구들은 간간히 있으나, 대부분 남성작가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으나 중국현대문학의 우리말 번역본이 상당수 남성작가 작품에 치우친 것도 이러한 연구 경향의 한 이유라고 본다. 최근 중국문학 전공자 및 국문학을 전공하는 중국 유학생들이 한중현대문학 비교 연구에 관심을 가지면서, 연구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서사를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는 여전히 드문 편이다.

4) 한중현대문학에 대한 비교 연구는 그 역사가 길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한중 수교를 기점으로 하여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그 접근 방식도 다양한 바, 이를 통해 한중 현대문학의 유사성과 변별성을 찾고, 양국 문학, 나아가 동아시아 문학에 대한 특수성과 보편성을 짚어내는 데에까지 그 노력이 미치고 있다. 박재우,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의 역사와 현황 및 과제」, 『중국현대문학』22집, 2002; 우한, 『강경애와 소흥 소설의 비교 연구-여성인물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쪽, 2004, 참조.

기를 배척하거나 광인을 멸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시각은 17세기에 와서 많이 달라진 바, 종교와 이성에 대한 철학적 사회적 재해석이 많은 작용을 함으로써, 광기는 이성, 도덕성의 규칙 등에 의해 억압당하게 된다. 특히 데카르트가 광기를 이성의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광기는 이성과 대립하는 것으로 확고하게 굳어졌다.<sup>5)</sup> 질서, 물리적 도덕적 제약, 익명성의 압력, 일치에 대한 요구로 규정되는 이성<sup>6)</sup>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이는 과학과 산업이 발전한 근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더욱 심화되어 갔다. 그래서 푸코는 '광기'의 또 다른 이름을 '타자성'으로 명명한다.<sup>7)</sup> 하지만 그가 더욱 주목한 것은 광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권력의 문제였다. 이성과 이성이 아닌 것을 분리시키는 것 역시 권력의 작용임을 제기하면서 광기를 통해 중심과 주변에 대한 인식을 해체하고자 한다.

한편, 근대소설에서 광기는 이보다 더 심층적인 의미를 재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루카치에 따르면, 소설의 주인공은 숨겨진 삶의 총체성을 찾아다니는 자이다. 찾아다니는 자는 객관적인 삶의 전체성이나 이러한 전체성이 주체에 대해 갖는 관계가 그 자체로서는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주어진 삶의 총체성과 주체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고 있고, 소설의 주인공은 찾는 행위를 통해 이 간극을 해소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찾는다는 것은 어떤 목표나 목표에 이르는 길이 직접적으로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설령 심리적으로 직접적으로 확고부동하게 주어진다 해도, 그러한 것은 실제 존재하는 상호관련성이나 윤리적 필연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아니라, 객관적 세계에서나 규범적 세계에서는 그것에 상응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단순한 하나의 영혼적 심리적 사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목표와 길이 심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주어진다면 그것은 범죄 또는 광기가 된다는 것이다.<sup>8)</sup> 바꿔 말하자면, 광기는 주인공이 심리적으로라도 상실된 삶의 총체성을 찾기 위한 방편이고, 이는

5) 신경자, 「미셸 푸코의 광기와 프랑스 17세기의 감금제도」, 『불어불문학연구』 제54집, 290쪽, 2003.

6) 미셸 푸코 지음, 김부용 옮김, 『광기의 역사』, 8쪽, 인간사랑, 1991.

7) 같은 책, 7쪽.

8) 게오르그 루카치 지음, 반성완 옮김, 『소설의 이론』, 76-78쪽, 심설당, 1997.

자아와 삶의 현실 사이에서 주체가 느끼는 간극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인 것이다. 그래서 광기는 인간의 정신에 존재하는 극단적 대립을, 광인은 인간의 사회에 존재하는 극단적 대립을 알려주는 표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sup>9)</sup>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근대소설에서 나타나는 광기는 근대 사회의 심각한 병리성을 표현하는 유효한 방편이 된다. 근대적 자아의 형성 또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코드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봉건 사회의 병폐와 불합리를 광인의 입을 통해 전달한 루쉰의 「광인일기(狂人日記)」가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광인은 기성의 권위와 질서에 대한 회의와 부정을 보여주는 근대적 인간의 상징이며, 그가 보여주는 광기는 폭력적 세계와 그것의 지배에 대한 저항의 몸부림이다.<sup>10)</sup> 광기가 자아와 현실세계의 간극을 보여주는 경우는 한국현대소설에서도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재선에 따르면, 현대한국소설이 광기나 증후군을 사회적 병리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원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인공이 보이는 광기의 원인으로는 사회정치적 환경 및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오는 압박이나 고통 등이 들 수 있다고 한다.<sup>11)</sup>

그렇다면, 여성소설에서 나타나는 광기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여성문학에서 광기는 여성의 정체성 인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성 텍스트의 전략이 남성에게 의해 구현된 여성 정체성, 즉 천사와 마녀라는 대립 이미지를 해체하고 나아가 이를 재건하는 데에 있다고 본 샌드라 길버트와 수잔 구바는 19세기 여성작가들을 분석한 『타락방의 미친 여자』를 통해, 여성소설에서 광기란 가부장제 사회에서 타자로 인식되고 있는 여성이 주체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글쓰기의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여성작가의 소설에 등장하는 미친 여자가 대개 작가의 분신이며 작가가 자신의 불안과 분노의 이미지라고 분석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분열, 다시 말해 참 존재와 강요된 존재 사이에서 겪는 정신분열을 미친 여자의 모습을 통해 투영한다는 것이다. 그들에 의하면

9) 김언하, 「루쉰의 문학 세계와 광기 주제」, 『중어중문학』 35집, 489쪽, 2004.

10) 이주노, 「魯迅의 <狂人日記>, 狂人と狂氣의 形象化」, 『중국현대문학』 제43호, 37쪽, 2007.

11)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242-244쪽, 민음사, 1991.

19-20세기에 걸쳐 나온 시, 소설에서 마녀를 등장시킨 여성작가들은 모두 이 마녀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마녀의 의미를 바꾸고 있다. 가부장적 문화에 의해 강요된 자기 정체성에 작가 자신을 일치시키는 동시에 그 정체성을 수정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여성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천사와 마녀, 상냥한 여자와 분노하는 광기의 여자의 대립적 이미지는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뒤집기 전략이다. 이를 반영하는 여성의 글쓰기는 자연 혁명의 속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sup>12)</sup>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여성소설에 나타나는 광기는 여성의 정체성 인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정신병자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실례 분석을 통해 여성과 광기의 함수관계를 분석한 체슬러도 성 정치학의 관점에서 여성의 광기를 바라본다. 그녀는 여성이 건강하려면 여성이라는 자기 성별에 합당한 행동규범에 '적응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심지어 사회적으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유형일지라도 그 규범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 문화의 정신건강 윤리와 지표는 남성적인 것이다.<sup>13)</sup> 이렇게 보자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판단된, 쉽게 말해 '미친' 여자로 규정된 - 직업적 문화적으로 '전통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우리 시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남자 전문가들에 의해서<sup>14)</sup> 여성은 남성적인 기준에 의해 재단된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어긋난 여성들이다. 그래서, 여성에게 있어 '광기'라는 것은 개인에게 부가된 성역할의 상투적인 유형을 총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거부하려는 행위의 표출이 된다.<sup>15)</sup> 이들의 '미친' 언행이나 사고방식은 사실 '남성적인 기준'에 따른 전통적인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몸짓인 것이다.

근대중국이나 식민지 조선의 경우, 여성자아는 중층적으로 타자화된 존재이다. 소설에서 재현되는 광기의 의미를 떠올려 볼 때, 이들의 광기는 근대중국의 병폐를 전달하거나 식민지 조선의 암울함을 온 몸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가부장적 사회 구조의 타자라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야기하는 현실과 이를

12) 토랄 모이 지음, 임옥희·이명호·정경심 옮김,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 70쪽, 한신문화사, 1994에서 재인용.

13) 필리스 체슬러 지음, 임옥희 옮김, 『여성과 광기』, 151-160쪽, 여성신문사, 2000.

14) 같은 책, 147쪽.

15) 같은 책, 138쪽.

극복하기 위한 자아 사이의 간극 혹은 대립을 표출하는 수단이 된다. 중국현대여성서사를 예로 들면, 여성인물의 자아 분열은 흔히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 나타난다. 이들이 앓고 있는 병은 대개 우울증이다. 정신병의 일종인 우울증은 광기의 한 양상이다. 1920년대 루인(盧隱)의 리스(「麗石的日記」), 딩링(丁玲)의 소피아(「莎菲女士的日記」)등에서 보이기 시작한 우울증적인 광기는 90년대 천란(陳染)의 파이얼(黛儿:「另一只耳朵的敲击声」)과 링(零)여사(「私人生活」), 린바이(林白)의 “나”(「一个人的战争」)등으로 이어진다. 쉬샤오빈(徐小斌)은 위(羽:『羽蛇』)를 통해서 이들과 또 다른 각도에서 정신병에 걸린 여성자아의 내적 분열을 보여준다. 이들 외에도, 적지 않은 여성작가들이 정신병을 앓는 혹은 앓고 있다고 여겨지는 여성자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백신애, 강경애, 김말봉, 장덕조 등의 작품에서 현실의 억압을 가시화하거나 여성에게 부여된 속박을 벗어내고자 하는 욕망이 광기라는 기제를 통해 나타난다.<sup>16)</sup>

따라서 여성서사에 구현된 광기의 양상과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작가의 여성의식 및 사회의식을 가늠하는 한 방법이 된다. 또한 여성이 처한 참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이 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중국과 한국의 현대여성서사에 나타나는 광기의 양상에 대한 비교 고찰을 통해 여성의 광기가 발현하는 지점을 추적하고, 이들이 광기를 거두어나가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성됨’의 문제 내지는 의미를 사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주요 분석대상은 메이낭(梅娘:1920~ )의「수술하기 전(動手術之前)」(1943)과 백신애(1908-1939)의「광인수기」(1938)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이 두 작품은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이 당하는 억압을 광기라는 모티브를 빌어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상술했듯, 한중 근현대여성서사에서 광기를 모티브로 하는 작품은 적지 않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두 작품은 신여성이 보여주는 광기가 아닌 이른바 구여성(명문가의 귀부인과 보통 아낙네)의 혼인 생활에서 나타나는 광기를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작품들과 구별됨과 동시에 이 두 작품만의 공통점을 보여준다. 서술방식에서도 미친년

16)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242-243쪽, 신구문화사, 1996.

으로 낙인찍힌 1인칭 화자가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형태로 작품을 끌여가고 있다. 두 작품이 보여주는 이러한 공통적인 지형도 위에서, 개별 작품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통한 두 작품의 대비 분석을 통해 여성서사에서 나타나는 광기의 의미에 대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이점은 시공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여성됨'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보다 일반적인 근거가 되리라 생각한다. 나아가 이를 풀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지침을 제공해주리라 본다.

## 2. 여성의 광기와 그 회복의 서사

### 1) 백신애와 메이양의 생애 고찰

백신애와 메이양의 작품 활동 시기는 1930년대-1940년대 초반으로 모아진다. 이때는 양국 모두에게 있어 일체의 식민 통치가 강화되어가는 시기이다. 중국의 경우, 한국을 식민지화한 일본이 중국 동북지방을 거쳐 베이징까지 점령하여 반식민지화 상태에 놓여 있었다. 중국 동북 지방 출신인 메이양은 특히 일본 통치의 한 가운데에 있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두 여성작가는 식민치하 여성작가로서 인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부분이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북 영천 출생인 백신애는 친일 거상이었던 부친과 양반가문 출신인 모친 사이에서 외동딸로 성장하였다. 사회주의자였던 오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녀는 진보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스무 살이 되기도 전부터 여성운동과 사회운동에 가담하였다. 이후 192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나의 어머니」라는 글이 당선되어 작가의 길로 들어설 때까지 그녀는 적극적으로 여성운동단체와 사회운동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적지 않은 고초를 당하기도 했다. 문학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을까, 그녀는 사회운동을 접고 1930년 일본으로 건너가 문학과 연극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딸이 공부하고 글 쓰는 것을 반대<sup>17)</sup>했던 부친이 경제적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제대로 공부해보지도 못하고 1932년 귀국한다. 그리고 부모님의 뜻에 따라 1933년 결혼하였다. 이때부터 1936년까지가 창작에 있어서 그녀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의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못하였고, 설상가상으로 건강까지 악화된 그녀는 1939년 서른하나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였다. 길지 않은 생애이지만, 그녀의 삶은 여성으로서의 자아와 작가로서의 사회의식을 구축하는 과정<sup>18)</sup>이었다고 할 수 있다. 친일 부호의 딸이자 은행원의 아내였던 그녀의 표면적인 삶이 주는 선입견과 달리, 그녀는 하층민들의 궁핍한 삶에 주목했으며, 여성운동가로서 여성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이었던 만큼 사회비판의식도 강했다.

본명이 쑤자웨이(孫嘉瑞)인 메이양 역시 동북 지방의 거상을 부친으로 두고 태어났다. 그러나 부친과 자유연애를 했던 생모는 정실이 아니었던 탓에 메이양을 낳은 뒤 쫓겨나 자결했다고 한다. 그녀의 필명인 梅娘은 바로 어머니가 없다는 '沒娘'과 발음이 같은 데에서 따온 것이다. 비록 부친의 많은 사랑 속에서 좋은 성장 환경을 제공받았으나, 그녀를 포함한 6남매의 어머니가 4명인 가정환경 속에서 그녀는 봉건제도의 불합리와 이로 인한 여성의 비극을 어린 나이부터 몸으로 체득할 수밖에 없었다. 불과 열 살의 어린 나이에 「여권진흥의 장점에 대해 논함(論振興女權之好處)」이라는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것도 그 성장 환경에서 연유했을 것이다.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 '5.4' 신문화 운동의 영향 하에서 그녀는 다양한 작가 작품들을 탐독, 문학적 꿈과 자질을 키워나갔다. 조금씩 습작에 몰두하던 그녀는 1936년 『小姐集』이라는 제목으로 첫 작품집을 내게 된다. 1936년 부친이 사망한 후, 그녀는 형제들과 함께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다. 의학을 공부하길 원했던 집안의 바람과 달리, 그녀는 글쓰기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다. 그러던 그녀는 리우룡광(柳龍光)과 만나게 되고, 이들의 만남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집안에서 경제적 원조를 끊음에 따라 학업을 그만두고 그 해 겨울 귀국하게 된다. 오래지 않아 리우룡광도 장춘으로 돌아왔고, 그녀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서 그와의 결혼을 감행한다. 그 결과 그녀는 집안과 결별하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적극적

17) 이종기, 「백신에, 그 미로를 따라가다」, 『백신에선집』, 475쪽, 현대문학, 2009.

18) 변신원, 「백신에 소설 연구」, 『연세어문학』26집, 140-141쪽, 1994.

으로 문학 활동을 진행하면서 차츰차츰 이름을 얻어갔다. 1937년부터 본격적으로 창작생활에 종사한 그녀는 1940년대 초반까지 화북지방의 손꼽히는 작가 중 하나로 이름을 날렸다. 1942년 베이핑(北平)과 상하이(上海)의 서점이 공동으로 조사한 ‘독자가 좋아하는 여성작가’에서 장아이링(張愛玲)과 함께 수위에 올랐던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南玲北梅(남쪽에 장아이링이 있다면 북쪽에는 메이냥이 있다)”라는 평가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sup>19)</sup>

간략하게 살펴본 두 여성작가의 삶을 보면, 이들은 둘 다 지방 부호의 딸로 태어났으나, 그 안에서의 삶을 거부하고 홀로 서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백신애는 스스로 강한 열정만을 가지고 주위의 말 못할 억압에 혼자 분투해 왔다고 고백하기도 했다.<sup>20)</sup> 주어진 안락한 삶을 버리고 창작의 길에 들어선 두 여성 작가의 삶의 궤도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은 식민치하 각성한 여성들이 거쳐야 했던 삶의 한 일면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이들의 창작은 이러한 삶의 소산이다.

그런데, 두 작가 모두 오랜 동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다가<sup>21)</sup> 최근 작품집이 나오면서 재조명을 받고 있다. 백신애의 경우는 백철과 이병기가 주제에 대한 주관성과 거친 문장을 약점으로 지적<sup>22)</sup>하면서, 부정적인 평이 답습되어 온 경향이 강하다. 메이냥은 이보다 좀 더 복잡한 바, 그녀에게 덧씌워진 정치적인 덧으로 인해 작가로서의 삶을 접어야 했으며 오랜 시간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다. 그녀와 그녀의 작품에 대한 세간의 평가 역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들에 대한 연구는 각각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지나

19) 盛英 主編, 『二十世紀中國女性文學史·上卷』, 525쪽, 天津人民出版社, 1995.

20) 백신애, 「자서소전」, 이ungi, 위의 책, 456쪽.

21)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성작가에 대한 문학사적인 소홀도 그 중 하나였으리라 본다. 변신원은 문학사에서 여성작가의 작품이 그들이 지니고 있는 역량이나 가치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의 원인으로 여성이라는 성별적인 한계를 언급한다. 즉, 문학평가기준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는 점이다.(변신원, 위의 글) 이는 중국현대여성작가들에게서도 예외가 아닌 바, 사회적 정치적 공리성을 우선시해온 분위기에서 사랑이나 결혼과 같은 사적 경험에 주로 갇힌 여성작가들의 작품은 비주류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2) 백철, 이병기 지음, 『국문학전사』, 431쪽, 신구문화사, 1972, 박미현, 『백신애 소설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청구 논문, 6쪽, 1992에서 재인용.

면서 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백신애에 대한 연구는 동시대 박화성, 강경애 등의 작품과 함께 빈공문학의 범주에서 많이 읽혀진다. 또한,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그의 작품에 투영된 여성과 모성의 문제에 대해 밝혀내기도 한다. 이들 연구에서 그녀는 1930년대 여성작가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sup>23)</sup> 메이양의 경우, 1980년대에 들어 윤함구(沦陷区)문학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녀의 창작 생애 및 작품에 대한 연구를 필두로 하여, 동시대 여성작가들 - 장아이링, 쑤칭(蘇青) 등 - 과의 비교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에서 그녀는 여성으로서 자아의식과 남권중심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상당히 뚜렷하게 드러나는 작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sup>24)</sup>

## 2) 타자화된 여성이 ‘미친’ 이야기

「광인수기」와 「수술하기 전」은 가부장적 규범에 순응하며 살아온 여성이 미친년으로 낙인찍힌 과정을 풀어내고 있다. 하지만 자신을 미친년으로 취급하는 세상에 대해 원망하는, 이른바 신세 한탄으로 들어 넘기기에 이들의 목소리가 가뱌지 않다. 두서없이 내뱉는 그 녀드러 안에 가부장제 사회 도덕적 잣대의 이중성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광인수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이 작품의 여주인공이 뱌어내는 말에는 거친 욕설과 원망과 저주와 한탄과 자조가 뒤섞여, 그야말로 광인의 전형성<sup>25)</sup>을 보여준다. 사실 그녀는 말 그대로 현모양처를 자신의 주어진 역할로 알고 그것을 지켜온 여인이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봉양하면서 유학 가 있는 남편을 기다렸고, 남편이 “무슨 주의자”로 몰려 고초를 당할 때에는 새벽마다 남편의 안위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는 와중에 이십여 년이 흐르면서 그녀는 딸 둘과 아들 하나의 어머니라는 역할을 하나 더 부여받았다. 그리고 그들의 살림이 자리를 잡아갔을 무렵, 그녀는 돌연 미친년이 되어버린다. 남편의 외

23) 최혜실, 「백신애 문학에 나타난 이중적 타자성-공평과 여성성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24집, 28쪽, 2004

24) 王慧灵, 「梅娘研究述评」, 邵阳学院学报, 2005年 2期.

25) 김미현, 위의 책, 236쪽.

도 때문이다. 자신을 애태우던 “무슨 주의자”를 놓은 줄 알았던 남편이 다시 밤늦게 돌아오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아지자, 그녀는 남편이 혹 다시 “주의자”가 된 것은 아닌가 싶어 남편을 미행한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가 목격한 것은 한 여인네의 방으로 들어가는 남편의 모습이다. 게다가 그녀는 그 여인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남편이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아니. 그 여편네 말은 내지도 말아요. 내가 열여덟 살 때 부모의 명령에 못 이겨 억지로 강제결혼 한 것이니까. 나를 그를 한 번도 아내로 생각해보본 적이 없어요.

(중략)

아내란 것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나에게 맛있는 음식이나 먹여 주고 옷이나 빨아주고 밤이 되면 야수 같은 본능만 아는 그런 여편네와 20년이란 세월을 살아왔구료. 아무 감격도 신선함도 이해도 없는 그런 부부생활이었어요.(중략) 그 여편네는 나에게 무지하기를 원하고 생활이 평안하도록 일하는 남편이 되기 원하며 자식에게는 정신적으로 충실한 종이 되기 원할 따름이어요. 그러니 나라는 사람은 어느 곁에 나를 위한 삶의 시간을 가지란 말인가요.26)

자신이 남편에게 있어 불행한 존재라는, 아내로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남편의 이와 같은 말에 그녀는 “요란하던 심장이 깜박 까무러치는 것”같은 충격에 휩싸인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낳은 자식들마저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치부해버린다. 어미로서 자신의 존재마저 부정당한 것이다. 그런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남편의 신발을 “그년”의 집 창문에 던져버리는 것뿐이다. 그 결과 그녀는 남편에 의해 미친 여자로 몰리게 되고, 집안을 망쳤다는 오명까지 뒤집어쓴다. 남편의 도덕적 일탈이 아내에게 미친 여자라는 도덕적 비난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이는 물론 가부장제 사회에서 타자화된 여성이 질 수밖에 없는 짐27)이기도 하겠지만, 이들의 광기는 가부장제 도덕적 잣대의

26) 이중기, 위의 책, 256-257쪽.

27) 가부장제 안에서 훈육된 여성은 그 질서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는다. 이

이중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한편, 「수술하기 전」은 가부장제의 도덕적 기준에서 이탈함으로써 미친년으로 몰린 한 여인의 입을 빌어 여성의 본능적인 욕망을 억압하는 그 기준의 부당함을 고발한다. 이 작품은 명문가의 규수였던 한 여인이 성병에 걸린 뒤 병원에 찾아와 의사에게 풀어놓는 낫두리가 그 내용이다. 작품의 여주인공인 “나”는 말다툼을 하고 돌아오지 않은 남편을 기다리다가 화가 나서 밤에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남편의 친구와 부딪히게 된다. 그리고 그의 유혹에 빠져 정조를 잃게 된다. 이후 그녀는 자신이 성병에 걸렸다는 것과 임신한 것을 알게 되고, 주변의 조소와 비난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의지조차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그녀가 깨달은 것은 너무도 착실하게 가부장적 규범을 지켜왔던 자신에게 한 마디 변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사회-남편의 방종함에는 침묵했던-의 냉혹함이다. 바로 여기가 그녀의 광기가 발현하는 지점이다.

남편은 그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방종하게 살 수 있는데, 나는 오히려 남자들의 척도로 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실이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인 거예요.28)

그 현실에서 그녀는 자신이 단지 그의 물건 중의 일부, 하나의 살아있는 물건임을 깨닫는다. 그녀를 자기 신하로 보는 그가 요구하는 것은 그녀의 복종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공모하여 가부장제의 권력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것은 “백의천사”들이다. 그녀들은 여자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

작품의 여주인공에게 있어 그것은 아내와 어머니와 며느리로서의 가치일 것이다. 그리고 그 존재 가치를 부여해 주는 사람은 남편이다. 남편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은 곧 가부장제 질서 내에서 그녀의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조주현은 이 여성의 광기를 가부장제의 틀 안에서 밀어내는 남편 앞에서 그녀가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라고 분석했다.(「미친년 낫두리」,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 174쪽,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8.) 우미영도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광기를 가부장적 질서에 속하고자 하는 타자화된 여성의 소외된 욕망의 결과로 본다.(「여성의 광기와 무의식의 욕망-백신에론」, 『여성문화연구』제4호, 367쪽, 2000. 참고)

28) 張泉 選編, 『梅娘小說散文集』, 286쪽, 北京出版社, 1997.

도 앓을뿐더러 경멸하기까지 하며, 남자들이 만들어놓은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모든 것을 재단한다. 그 이유는 사회로부터, 남자들로부터 잘못 배운 탓이다. 그래서 그녀는 “백의천사”들이 두렵다고 고백하고, 자신이 정말 “미쳤으면 차라리 좋겠다”고 한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남성들의 숭양과 여자들의 질투를 받았던 한 여인이 차라리 미친년이 되기를 원하는 사회, 그것이 그녀가 처해있는 현실이다. 그 안에서 그녀는 천사와 광녀라는 가부장적 ‘나눔’에 의해 부정성을 입고 있는 ‘미친년’이라는 이름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미쳐야만 자신을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천사’라고 할 수 있는 “고귀한 마나님” 혹은 “명문규수”라는 미명 하에서 모순에 들어찬 이중생활을 하느니, 그녀는 차라리 ‘미친년’이 되어 자신에게 씌워진 가면을 속 시원하게 벗어던져 버리겠다고 외친다. 이를 통해 그녀는 천사와 광녀에게 덧씌워진 이미지, 즉 긍정과 부정, 밝음과 어둠, 질서와 무질서, 이성과 비이성 등의 의미를 전복하고 있다. 미친년의 각색을 빌어 던지는 그녀의 낫두리를 낫두리로 남겨둘 수 없는 까닭이다.

이러니 한 것은, 가부장제에서 규정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서 일탈한 여성(「수술하기 전」)은 미친 여자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 반면, 일탈한 남성(「광인수기」)은 오히려 피해자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탈한 남성이 피해자가 되는 순간, 그의 아내(「광인수기」)는 미친 여자가 된다. 가부장제 사회의 도덕적 잣대가 이중적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지점이다. 바로 여기가 가부장제 사회에 순응하며 살아온 이 두 여성들의 광기가 발현하는 공간이다.

## 2) 가부장제에 대한 모반과 미친 여성의 자기 세우기

가부장적 윤리규범에 대한 저항에 뿌리를 둔 두 여성의 광기는 각각 ‘하느님’과 ‘의사’라는 대상을 통해 그 윤리규범을 비판하고 나서는 것에서 한층 강화되어 나타난다. 「광인수기」의 “나”는 “사람의 새끼라고는 하나도” 없는, 비가 들이치는 다리 밑에 홀로 앉아, “하느님아”라고 부르며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야기합시다.”라고, 하느님께 말을 건다. 「수술하기 전」의 “나”도 냉담하기 짝이 없는 의사 선생님에게 가지 말라고, 둘이서만 얘기 좀 하자고

붙잡는다. 사실 이 두 여성이 각각 ‘하느님’과 ‘의사’에게 말을 걸고 있다고는 하지만 상대방의 말은 숨어 있다. 특히 ‘하느님’에게 말을 거는 「광인수기」의 그녀는 기실 혼자 얘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수술하기 전」도 ‘의사’의 말은 여주인공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각각 ‘하느님’ 및 ‘남성의사’와 묻고 반박하는 ‘대화’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데에 있다.

먼저 「광인수기」를 보자. 여기에서 여주인공은 ‘하느님’을 그녀와 동등한 대화상대로 끌어내리면서, 그의 불공정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를 통해 ‘하느님’이 지니고 있는 절대자로서의 신성함 또는 준귀함을 해체하는 것이다.

허허 참, 사람 죽이는구나. 글썄 이 암똥마리 까지고 소견머리가 훌락 벗겨진 하느님아 내 말씀 들어봐라.(중략)

네 이놈 하느님아. 에이 빌어먹을 개새끼 같은 하느님아, 네가 분명 하느님이라면 왜 그 악하고 악한 도둑놈의 연놈을 그대로 둔단 말이고. 당장에 벼락 천둥을 내려 연놈을 한꺼번에 박살을 시킬 일이지. 아니올시다. 아이 무서워, 아니올시다. 거짓말이올시다. 일부러 하는 말이올시다. 그 연놈이 죄가 있을 리 있는가요. 다 내 팔자지요. 부디부디 벼락은 치지 말고 잘살도록 해주시오.(중략)

저 빌어먹다 낫잠 잘 하느님은 저를 위해 주고 겁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건방이 늘고 심술이 들어가더라.

나를 영 사람으로 여기지 않더라.<sup>29)</sup>

아이고, 맘시다.

아이고, 빌어먹을 도둑놈.

네가 하느님이야? 도둑놈이지

그만치 내가 정성을 드렸으면 조금이라도 효험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느냐?<sup>30)</sup>

대체 이 때려죽일 놈의 하느님아. 내가 그 거울 얼음을 깨고 목욕하며

29) 이중기, 위의 책, 239-240쪽.

30) 같은 책, 251쪽.

빌고 빌고 하여 몸 건강하게 주의자를 그만두게 해달라고 했더니 무슨 칭으로 글썽 몸도 건강하고 주의자는 그만두었다 할지라도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해주었느냐 말이다.<sup>31)</sup>

“네~”, “당신”으로 격화된 ‘하느님’에서 나타나듯, 그녀는 하느님과 자신을 동격화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아버지’ 하느님은 절대적으로 신성한 존재이다. 그녀에게 있어서도 ‘하느님’은 기실 그녀가 의지하고 믿는 절대적인 힘이라 할 수 있다. 남편이 감옥을 드나들 때 하느님을 향해 밤마다 빌고 빌었다는 고백에서 하느님에 대한 그녀의 절대적인 의존도를 알 수 있다. 또한, 남편의 외도에 별을 주지 않는 하느님을 원망하다가도 금세 자기 잘못이라고 비는 그녀의 모습은 절대자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경외심과 두려움은 ‘하늘님’의 속성으로부터 기대하는, 일종의 공의로움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하느님께 그녀는 서슴없이 하대를 하며, 그를 누추화시킨다. 왜 그러한가. “내 칭을 하나인들 들었던가”, “단 하루라도 내 마음을 놓게 한 적이 있었더냐”<sup>32)</sup>는 그녀의 반문에서 하느님에 대한 ‘불경’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아버지’ 하느님에게 순종해왔던 그녀의 이 물음은 그녀가 보기에 ‘하느님’이 그녀와 같은 여성에게 결코 공의롭지 않다는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sup>33)</sup> 이는 그녀가 ‘하느님’의 형상을 여성의 시각에서 재구성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때 여성의 시각에서 재구성된 ‘하느님’은 여성에게 억압적이고 한없이 불공정한 가부장적 남성중심 이데올로기의 상징이 된다.

한편, 자의적으로 가부장제의 도덕적 금기를 범하여 미친년이 된 「수술하기 전」의 여주인공은 ‘남성 의사’를 자신의 대화상대로 설정한다. 앞서 서술했듯, 남성 의사는 윤리적 규범을 여성에게 들이대어 그를 정상/비정상상으로 가름할 수 있는 공적인 자격을 지닌 존재이다. 이 대상 앞에서 그녀는 성별적 지식적으로 타자이다. 즉, 이중적인 억압 상태인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몇 번이나 그의

31) 같은 책, 252쪽.

32) 이중기, 위의 책, 251쪽.

33) 안숙원, 「백신에의 반미학과 페미니즘」, 『여성문학연구』 제4호, 338-339쪽, 2000.

병원 앞까지 왔다가 발걸음을 돌렸었고, 수술대 위에 누워서도 그의 미소가 자신을 짓누른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녀는 병원의 남성 의사를 가부장적인 ‘남성’의 대표로 설정하고 있다. 때문에 그에게 순종을 하다가도 서슴없이 욕을 퍼붓는 것이다. ‘의사’와 그의 ‘말’이 상징하는 가부장적인 ‘남성’은 물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녀의 말을 거쳐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설령 내가 창녀이고, 일개 기생이고, 아름다운 청춘을 생존으로 바꾼 바뀌버린 ‘천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로 인해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거나 참회하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 모든 것이 당신들, 바로 당신 남자들이 여자들을 그렇게 하도록 쥔 거예요. 당신들은 몇 천 년 동안 계속 되어온 남성 중심의 우월한 지위를 믿고 사회에서 횡포한 짓을 해요. (중략) 그러나 당신들이 옳다고 하지, 자기가 직간접적으로 여자들을 파멸시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남자는 하나도 없어요. 사회는 당신들의 손바닥 안에 있고, 사회는 당신들의 도구예요. 이 귀신들! 여자들의 선흥색 피를 먹고사는, 여자들의 청춘을 빨아먹는 귀신들 같으니! 34)

내가 병에 걸린 이유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많이 덮어 숨길 필요가 뭐 있겠어요? (중략) 내가 왜 이렇게 까닭 없이 죽어야 하나요. 난 결코 뭘 잘못한 게 없어요. 다만 세상의 남자들이 정한 규범에서 우연히 한 발 비켜갔을 뿐인데, 이렇게 나 자신을 짓밟을 수는 없어요. 나는 모든 불행한 여자들과 힘을 합쳐 당신네 남자들과 싸우겠어요. (중략)

당신 왜 웃는 거지요, 내가 또 미친 소리 한다고 웃는 거지요. 어찌면 내가 진짜 미쳤을 수도 있지요. (중략) 당신! 박사님, 당신은 신체 구조를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름다운 몸매와 왕성한 욕망을 가진 한 묘령의 여인이 있어요. 마음이 뒤숭숭한 어느 날 밤, 여태껏 만족해 본 적이 없는, 이미 오랫동안 억눌러온 그녀의 본능이 다른 남자로 인해 깨이고, 그 결과 그녀가 정조를 잃은 일이 대역무도한 것인가요?35)

34) 張泉 위의 책, 279쪽.

35) 같은 책, 281-282쪽.

바흐친에 따르면, 말의 이념적 의미는 오로지 대화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sup>36)</sup> 대화적 관계란 상대방을 대등하게 보는 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의 근간은 타자에 대한 인식이다. 즉, 어느 한 쪽이 객체나 부속물이 되어 압도당하고 통합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개별성을 인정받는 독립된 주체인 것이다.<sup>37)</sup> 이러한 점에서 보자면, 이들 작품에서 여주인공은 '대화'의 형식을 빌려 자신을 주체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주인공이 광기를 풀어내는 장소를 '병원'으로 설정하고 있는 「수술하기 전」에서 여성자아의 자기 세우기의 몸짓은 더 강력하다고 하겠다. '병원'은 과학과 문명의 상징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과 문명 안에서 여성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가부장제에서 마련된 여성의 역할을 통해서이다. 자신을 부르는 그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거부할 때 여자가 있을 수 있는 곳은 문명이 닿지 않는 곳, 황무지가 된다.<sup>38)</sup> 타자화된 주체성을 거부했던, 그래서 '병을 앓았던' 리스나 소피아에게 있어 '황무지'는 자기만의 방이었다. 남성적 질서가 닿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술하기 전」의 여주인공은 오히려 자신을 타자화 하는 그 공간에 들어와 그 공간을 지배하는 질서와 규범을 비판하고 그것을 해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녀는 자신을 타자화 하는 공간의 한복판에서 자신을 주체화시킴으로써 그 공간의 질서를 깨뜨린다. 사실 그녀가 깨달은 가부장제의 질서나 규범은 새롭지 않다. 그 질서로 인해 냉대와 비난을 받고 있는 그녀의 모습도 전혀 낯설지 않다. 그녀에 앞서 '병을 앓았던' 리스나 소피아와 같은 수많은 여성들을 보면 그러하다. 그러나 그녀가 그들과 다른 점은 바로 '황무지'를 넘어서 '문명'-남성적 질서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나와 주체로 자신을 곧추세우고 있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36) 미하일 바흐친 지음, 전승희·서경희·박유미 옮김,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173쪽, 창작과비평사, 1997.

37) 최재석, 「D.H 로렌스의 대화주의적 인간관계 모색」, 『D.H 로렌스 연구』 11집, 58-59쪽, 2003년.

38) 조주현, 위의 글, 174쪽.

혼자만의 중얼거림이나 글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대화’를 통해, 그 ‘대화’의 상호 울림을 통해 자신의 말이 담고 있는 이념적 의미를 전달하고, 이해시키고자 한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 3) ‘어머니됨’을 통한 광기 벗기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미친년에서 벗어날 것인가. 흥미롭게도 두 작품 모두 ‘어머니됨’을 통하여 광기로부터 벗어난다. 하지만, ‘미친년’에서 ‘어머니됨’을 통한 ‘정상’인으로서의 회복이 내재하는 의미는 두 작가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하하하.

정옥아! 석주야! 정희야……아무리 사람들이 네 어미 까닭에 너희들이 불행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믿지 마라. 너희 아버지가 이 어미에게 수 수계끼 문제를 내놓은 까닭이다. 흑흑.

아이고, 보고 싶어.

너희들이 보고 싶다.

정옥이 너는 장조림을 잘 먹고

석주는 생선을 잘 먹고

정희는 시루떡을 잘 먹고……

에라, 집으로 가야겠다……

누가 너희들을 보호할꼬……

비는 왜 이리도 많이 오노……

비를 노다지 맞고 가면 모두 나를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39)

인용한 부분은 「광인수기」의 마지막 부분이다. 여기에서 나타나듯, 그녀의 녀두리는 결국 자식들에 대한 염려로 끝을 맺는다. 자식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결국 “에라, 집으로 가야겠다”라고 내뱉는 그 한 마디에서 그녀의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호트르뜨리기’가 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그녀가 자신

39) 이증기, 위의 책, 263쪽.

의 ‘광기’를 접어내고 ‘정상인’으로 돌아간다는 뜻을 수반한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이 비를 흠뻑 맞고 가는 자신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상인’으로의 변화는 이후 그녀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짐작케 한다. 그녀가 흐트러뜨린 ‘아버지’ 하느님의 질서는 언제 그런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제자리를 찾았을 것이며, 그 질서 안에서 그녀의 삶은 여전히 그러할 것이다. 자신에게 불공정한 ‘아버지’ 하느님에게 욕설을 쏟아 내다가도, “아니올시다. 거짓말이올시다”라는 말로 그런 모반을 획책하는 자신을 황급히 부정하고 있을 그러한 삶. 자신이 거부하고자 하는 그 현실로부터 일탈과 회귀를 반복하고 있을 그러한 삶 말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타자화된 여성이 안고 있는 이런 이중성 때문에, ‘그녀’들은 어쩌면 이렇게 영원토록 ‘미친년’(일탈)과 ‘정상인’(회귀)의 사이에서 삶을 재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여기에서 ‘어머니됨’은 타자화된 여성이 지고 가야할 모순의 정점이라 볼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백신애가 포착한 여성 삶의 진실일 것이다.

반면, 메이냥은 백신애와 달리 ‘어머니됨’에서 백신애가 포착한 여성 삶의 비극을 풀어내는 길을 찾는다.

내 이 병은 도대체 성병 중에서 어떤 것인가요? 그것이 짧은 시간 내에 내 생명을 빼앗아 가나요? (중략)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무서운 병독을 내 태아에도 옮기나요? 말씀해주세요, 박사님! 저 절대로 다시는 미친 짓하지 않을게요. 내 마음엔 가장 순수한 모성애가 넘치고 있어요. 모성의 위대한 사랑이 나의 정신도 안정시켜줍니다. 나는 내 몸 안의 작은 생명이 잘 자라나길 간절히 원해요. 그가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고 있어요.  
(중략)

난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내 몸의 새 생명을 위해 새로이 더 멋진 삶을 살 거예요.(중략) 뱃속의 새 생명이 나에게 무한한 용기를 줍니다. 내 마음은 편안해요.<sup>40)</sup>

사실 그녀가 미친년으로 조롱받게 된 원인은 바로 그녀 뱃속의 아이 때문이다. 그녀의 표현을 빌자면, 그녀 평생 대자연이 가장 아름다웠던 밤, 두려움과 공포

40) 張泉, 위의 책, 281쪽.

와 쾌감과 위안이 절묘하게 어우러졌던 그 밤에 조물주가 그녀를 조롱한 것이다. 아이는 조물주가 그녀를 조롱했다는 구체적인 표지이다. 그런데, 이 때문에 죽음까지 결심했던 그녀를 살리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이이다.

모성이 가부장제가 만든 신화인지의 여부는 여기에서 논하지 않기로 한다. 중요한 것은 여성이 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즉, 남성적인 이득이나 어떤 기준에 의해 모성이 박탈당하거나 강제로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작품의 여주인공은 바로 이 점에서 모성의 의미를 재정립한다. 사실 그녀는 벼랑 끝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성의 선택은 그녀가 스스로를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는 행위일 수도 있다. 가부장적인 질서 바깥에서 생산된 것이기에, 그 질서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모성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가 그 모성을 선택한다는 것은 가부장적인 권력 구조 바깥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겠다는 의미와 통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가 보이는 모성은 남성에게 의해 만들어진 신화로서의 의미를 벗어난다. 이러한 그녀에게 ‘어머니됨’의 의미는 가부장 중심의 권력구조를 재생산하는 틀을 바꾸는 데에 있다. 즉, ‘아들’의 어머니로서 대를 잇는 데에 그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가려진 수많은 ‘딸’들을 드러내는 데에 ‘어머니됨’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뜻이다. 그녀의 이러한 의지는 “나는 꼭 내 아이를 잘 교육시켜서 이 사회가 여자에게 얼마나 불공평한지 알게 할 거예요. 적어도 다음 세대는 여자들을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기를 원해요.”<sup>41)</sup>라는 그녀의 강한 결심에서 묻어난다. 때문에 메이냥에게 있어 ‘어머니됨’은 전복과 저항이다. 메이냥은 이러한 ‘어머니됨’에 여성됨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게 아닐까. 설령 이러한 ‘어머니됨’을 위해서는 미친년이라는 모자를 쓰고 가야 한다고 해도 말이다.

### 3. 나오면서

이상, 본고는 메이냥과 백신애의 「수술하기 전」과 「광인수기」를 대상으로

41) 같은 책, 282쪽.

하여, 여성서사에서 나타나는 광기의 의미를 광기가 발현하는 원인과 그것을 거두어들이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메이냥과 백신애에게 있어 광기는 남성과 여성에게 달리 부여되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한 준엄한 물음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타자화한 여성(「광인수기」)이건 혹은 저항하는 여성(「수술하기 전」)이건, 결국은 미친 여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광기를 통해 바라본 여성 현실인 것이다. 서로 다른 공간(한국과 중국)에서 바라보았지만, 결국은 한 자리(미친 여자)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부장적 윤리 규범의 보편성과 견고함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넘어서는 길은, 백신애에게 있어서는 요원한 듯 보이지만, 남편의 아내로서는 ‘미친년’이었던 여주인공이 자식의 어머니됨을 통해 ‘정상’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은 가부장제 사회 수많은 여성들의 현실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비하여, 메이냥은 아들의 어머니가 아닌 딸의 어머니 되기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는다. 어머니와 딸의 연대만이 황야에서 헤매는 여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리치의 말<sup>42)</sup>을 상기해보면, 메이냥의 견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동일하게 짚어낸 여성현실에 대해 회귀와 극복이라는 상반된 길을 보여준 이 두 여성작가의 차이는 한국과 중국이라는 공간적 배경보다는 작가 개인의 경험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진취적이고 진보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굴레를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했던 백신애의 삶을 보면, 그녀가 여성현실에 대해 밝은 전망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았으리라 본다. 또한, 이들이 광기를 통해 짚어낸 여성 현실과 그것에 대응하는 서로 다른 길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도 공간적인 차이보다는 개인적인 경험의 차이에 두고 있는 이유이다. 오정희, 최윤, 천란, 린바이 등 아직도 광기를 빌어 토해내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하다. 백신애와 메이냥이 형상화한 두 미친 여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42) 아드리엔느 리치 지음, 김인성 옮김,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평민사, 2002, 307쪽.

## ❖ 참 고 문 헌

- 게오르그 루카치 지음, 반성완 옮김,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97.
-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 김은희, 안혜련, 이지숙, 최은정, 안노 마사히데 지음, 『신여성을 만나다-근대초기 한중일 여성소설 읽기』, 도서출판 새미, 2004.
- 또 하나의 문화,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8.
- 미셸 푸코 지음, 김부용 옮김, 『광기의 역사』, 인간사랑, 1991.
- 미하일 바흐진 지음, 전승희·서경희·박유미 옮김,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1997.
- 盛英 主編, 『二十世紀中國女性文學史·上卷』, 天津人民出版社, 1995.
- 아드리엔느 리치 지음, 김인성 옮김,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평민사, 2002.
- 엘레인 쇼월터 외 지음, 김열규 외 옮김,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1995.
-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민음사, 1991.
- 이재선, 『현대소설사』, 민음사, 2000.
- 이중기 편, 『백신애선집』, 현대문학, 2009.
- 張泉 選編, 『梅娘小說散文集』, 北京出版社, 1997.
- 토랄 모이 지음, 임옥희·이명호·정경심 옮김,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 한신문화사, 1994.
- 필리스 체슬러 지음, 임옥희 옮김, 『여성과 광기』, 여성신문사, 2000.

❖ ABSTRACT

The Meaning of "Madness" Shown in the Female  
Narratives in Korean and Chinese Literature

- Focused on the Comparative Study of Baek Shin-Ae's "The Diary of A  
Madman" and Mei Niang's "Before the Operation"

Eun-Jeong Choi

This study analyzes the meaning of madness shown in the female narrative, focusing on two novels- "Before the Operation" by Mei Niang and "Madman's Diary" by Baek Shin-Ae. The novel "Before the Operation" reveals women's instinctive desires through an insane woman and brings up a problem of unfair suppression caused by patriarchy. On the other hand, the heroine of "Madman's Diary" shows madness when she is at a crisis to be 'the other' in the patriarchal system. Her madness is caused because she fails to find the meaning of her presence in the system. Interestingly, a woman who departs from moral standards of patriarchy (from "Before the Operation") becomes the focus of public censure while a man (from "Madman's Diary") who also ignores those standards seems to be a victim. In "Madman's Diary", the man's wife is accused of being mad while he draws sympathy as a victim. This shows that those moral standards have duplicity. At this point, the heroines who continuously adjust themselves to the system express their madness. In other words, the madness implies a stern protest against the moral standards applied differently to men and women.

It is unique that the two heroines of the novels become 'sane' when they encounter the matter of 'being a mother'. When it comes to "Madman's Diary", 'being a mother' of the insane woman who becomes 'the other' in the system foretells dismal future. Meanwhile, Mei Niang indicates the way- 'being a mother'- to overcome the dismal future through "Before the Operation". In this case, the mother is not a figure that reproduces the patriarchal power structure, but an independent figure who wants to change it. For that reason, 'being a

mother' has the meaning of subversion and resistance.

---

**Key Words**

여성서사, 광기, 가부장적 기준, 타자화된 여성, 어머니 되기, 전복과 저항  
female narrative, madness, patriarchal standards, woman who has become the  
other, being a mother, subversion and resistance

논문접수일: 2010. 2. 27.

심사완료일: 2010. 4. 10.

게재확정일: 2010. 4. 15.